

## “우리야 몸이 밑천인데,



### • 보건요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로 똥쳐진 김진반의 새벽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리는 비라 반갑기까지 했는데 서울을 떠난지 3시간 남짓한 시간에도 장대같은 빗줄기가 고속버스 차창을 덮으니 하늘빛처럼 마음마저 어두워진다.

지난밤 지방취재간다고 칼날같이 바짓주름을 세워준 아내의 정성도 무시된채 온통 빗물바다가 되어 버린 광주시내를 다니다가 어항이 된 나의 구두를 바라보곤 水魔에 대한 얽은 공포감마저 느낀다.

이튿날 새벽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도착하니 청사내에는 농협조합원건강검사, 노인건강진단검사, 의보조합원건강검사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많은 직원들이 출장검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남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이시각에 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전남지부직원들, 이들에게는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보다는 최일선 보건요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 검사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 광주·전남지부 농협조합원 건강검사의 현장 “중도”

健協 광주·전남지부가 농협 조합원 공제 계약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 시작, 오는 10월 30일까지 있게 되는 이 건강검사는 광주·전남지역 233개소에서 6천 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얼마 안되는 검사인원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섬에서부터 산골마을까지 가지 않는 곳이 없는 건협 광주·전남지부 검진반은 이번에 전남지역을 휩쓸고 간 거짓말 같은 수해 속에서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기쁨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중도주민의 건강검사 현장은 그래서 더 의미가 깊었다.

#### • 총 233개소 면단위 농협조합원 6천71명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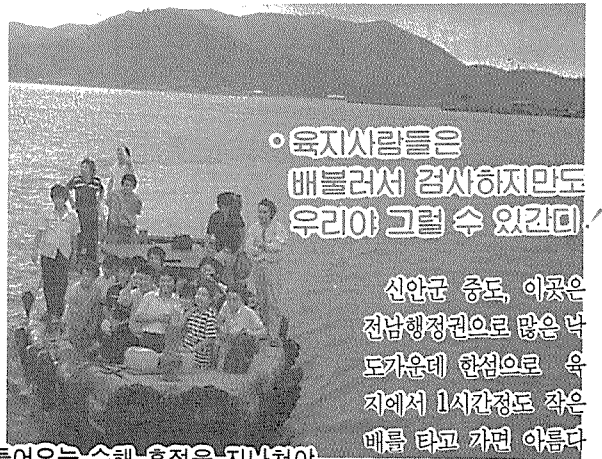
기자가 동행하게된 검진반은 '89. 7. 25부터 10. 30까지 전남 신안군 임자면외 25개 낙도주민을 비롯하여 나주군 남부면 해남군 화산면등 총 233개소 면단위 농협조합원 6,071명에 대한 건강검사를 추진하는 제1진 검진반이었다.

검진반원은 선 승철 계장병리사를 비롯하여 김 종일사업주임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이번 검사일정으로 하절기 휴가를 자진 반납하여 건강검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밤새 퍼부었던 장마로 여러 곳에서 수해를 당하여 침수지역이 늘어나고 인명피해가 있다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오늘 검진반의 목적지인 신안군 중도로 가기 위한 도로가 침수되어 많은 차량의 발이 묶여 있었고 논들은 물바다로, 가옥들은 무너져버려 새삼 천재지변의 고통을 느끼게 했다.

수해를 당해 건강검사를출장을 간다는 것이 무리였지만 지역간 날씨의 차이로 목적지인

증도에는 피해가 없어서  
검사일정대로 아침부터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는 소식을 받은 검진반  
원들은 시야에 들어오는  
수해의 흔적을 그냥 지  
나쳐 버린다는 자책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교차하여 침묵으로 일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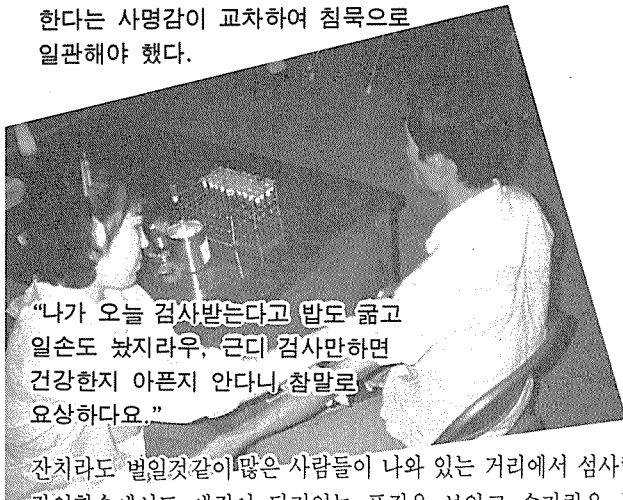
검진반원들은 시야에 들어오는 수해 흔적을 지나쳐야  
한다는 자책과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교차하여 침묵으로  
일관해야 했다.

신안군 증도, 이곳엔  
전남행정권으로 많은 박  
도가운데 한섬으로 육  
지에서 1시간정도 작은  
배를 타고 가던 야름다  
운 자태를 드러낸다.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  
며 섬에 다다르니 섬마  
을 사람들이 반갑게 검  
진반원을 맞아 주었다.

육지에는 물난리를 만  
났다는데 이곳까지 오느  
라 수고했다며 검진반원  
이 가지고간 검사기자재  
등을 받아주는 훈훈한  
인정속에 새벽부터 달려  
온 피곤마저 없어졌다.

마치 큰손님이 찾아와



잔치라도 벌일것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리에서 섬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강인함속에서도 애정이 담겨있는 표정을 보았고 손가락을 물고/물끄러미 쳐다보는  
꼬마들의 눈동자엔 내 어릴적 모습이 되살아났다.

『나가 오늘 건강검사받는다고 밥도 굶고 일손도 났지라우. 근디 검사만 하면 건강한지  
아픈지를 안다니 참말로 요상하다요! 워쳐코롬 피만 뽑고 알수 있디요?』라며 심전  
도기를 받아준 주민 정재섭(51)씨가 전라도 특유의 사투리로 물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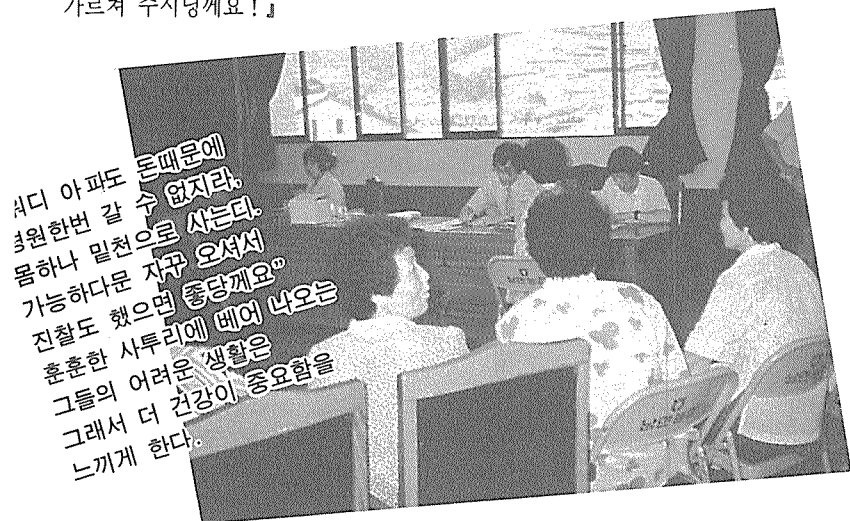
건강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등을 설명하는 검진반원에게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그에게서 순진한(?) 섬마을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건강검사도 좋지만 견협직원들만 보면 원체 반갑지라, 검사할 사람도 월매 안되는디 새벽부터 여기온거 아니겠소? 선상님들한테 늘 감사하당께요!』

『그라고 가능하다문 자꾸 오셔서 진찰도 했으면 좋당께요! 육지사사람들은 배불러서 검사하지만도 우리야 그럴수 있간디! 워디 아프도 돈따문에 병원한번 갈수 없지라, 몸하나 밀천으로 사는디』라며 막 검사를 끝낸 황 영자(47)씨가 말했다.

또 옆에 있던 주민 성 인경(45)씨는 건강검사를 받고난 느낌을 묻자, 『글씨, 받긴 받았는디 뭐 필요하다요? 워디 아프면 침한대 맞고 약먹으면 그만 아니겠소? 그라고 본디 여기사람들은 강골체질인께……』

그래도 평소 불편한 곳이 있어 궁금한 점도 많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렇게 선상님들께 고맙지라. 월매کم 아프다면 어떻게 몸조리하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전부 가르쳐 주시닝께요!』



### • 끝이 없는 건강에 대한 질문에서 보건교육의 필요성 절감

오후 늦게서야 점심시간을 갖고 섬마을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보건계몽활동을 하는 도중에, 가는 집마다 평소 건강에 대한 의문사항을 묻는데 끝이 없을 정도였다. 의학적 상식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검진반원들에게서 기자는 최일선 보건요원들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작년 농협조합원 건강검사때도 그랬지만 검사대상이 섬주민일 경우에는 건강검사 뿐만 아니라 보건계몽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이유는 이곳 사람들은 토

속적인 원인이나 자신의 몸을 밑천으로 생업에 종사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등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학상식마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건강검사가 끝나는대로 평소 건강할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각종 질병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주거지환경에 대한 보건문제 등 많은 보건상식을 계몽하고 있습니다」라고 김 종일사업주임이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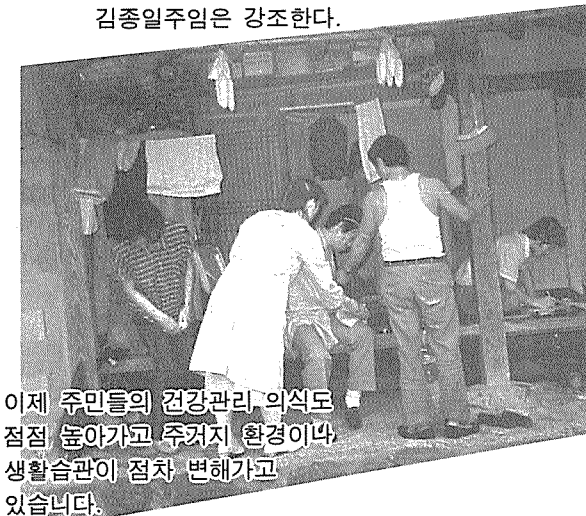
가장 기본적 의학상식마저도 알 기회가 없는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건상식 계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김종일주임은 강조한다.



출몰 안내를 맡아주었던 마을청년지도자 김 한용(33)씨는 「이곳 보건지소에서도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맘뉘시오 수고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회 자체 회의를 통하여 주민건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지만 모든 조건이 부족해서 사실 방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협직원들께서 해 주시는 보건활동은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적은 검사인원에도 마다않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섬까지 출장검사를 왔다는 자체에서 마을주민들은 건협에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으며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들 개개인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관리의식은 점점 높아가서 주거지 환경이나 생활습관등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건강관리 의식도 점점 높아가고 주거지 환경이나 생활습관이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서 병원에 가느니보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기때문에 경제적이란 생각까지 하고들 있습니다。」라며 건협광주전남지부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낙도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도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초 대상별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현지에서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건협광주전남지부 직원들의 노력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 봉사와 성실의 마음가짐으로 힘든 일도 잇는다.

이른새벽에 출발하여 설틈도 없이 주민건강검사에서 부터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하는 보건계몽활동까지 벌인 검진반원들은 해가 수평선으로 넘어갈즈음 귀선할 수 있었다.

더많은 시간을 함께 있어주길 바라며 빠른시일내에 다시 와주길 바라는 이곳 주민들의 마중을 뒤로 하며 육지로 향하는 배에 탑승한 검진반원들은 한결같이 피로한 기색을 띄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농협조합원 건강검사기간동안 26개 낙도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때문에 오늘의 빠른 피로회복이 내일 새로 만날 낙도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수 있다는 서로간의 묵계일 것이다.

칠흙같은 어둠이 가득한 시각에서야 도착한 건협 광주전남지부 청사에는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현지출장검사에서 돌아온 검진반원들을 기다리며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주해 있었다.

검진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하기에 여념이 없는 건협 광주전남지부 이홍량 사무국장은, 『금번 농협조합원건강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지역이 233개 읍면단위로 넓은데 비해 검사인원은 6,071명 정도로 적은 인원이므로 많은 출장시간에 비해 몇몇의 주민만을 검사해야 하고 주민보건의식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낮기 때문에 보건계몽활동에 더욱 주력해야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큼니다.

그 밖에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저희 광주전남지부 직원들의 단결력과, 평소 봉사하는 자세로 검사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가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주전남지부는 보다 적극적인 보건계몽사업을 전개하고 건강검사를 활성화하여 도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글〉